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담당부서	배포일시	2017. 12. 5. (화) 총 2매(본문 2)	
	철도건설과 철도운영과	· 과장 임종일, 사무관 손경복, 주무관 송명순 ☎ (044) 201-3890, 3894, 4781 · 과장 박지홍, 사무관 홍석표, 주무관 김은철 ☎ (044) 201-3970, 4774, 4634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무늬만 KTX인 ‘강릉 KTX’ 관련

- **(개통일 확정)** 서울-강릉 KTX 개통일은 시설물검증,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지난 11월 30일 마치고, 이후 결과보고서 작성과 검토, 미비점 보완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12.22일로 확정된 사항으로 개통식에 참석하는 귀빈 일정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**(소요시간)** 서울~강릉간 KTX는 서울~서원주 구간은 기존선로를 이용하고, 서원주-강릉 구간은 새롭게 건설된 최고속도 250km 선로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,
 - 강릉 여행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수 역에 정차함에 따라 최소 운행 시간이 서울-강릉 114분, 청량리-강릉 86분이 소요되게 됩니다.
 - *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인천공항~평창간 68분 소요계획을 올림픽 유치위에서 발표한 바 있음(2011.4)
- **(요금)** 요금의 경우, 열차선로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서울~강릉 KTX 요금이 타 노선에 비하여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.
 - * 서울~서원주(200km/h이하 구간, 102.3km) km 당 103.66원, 서원주~강릉(250km/h이하 구간, 120.9) km 당 140.91원 적용 → 서울~강릉 27,600원 적용

- (강릉 도착 첫차) 출근시간 대에 강릉에 도착하는 KTX 시간은 7시 8분, 8시 3분, 9시 1분 등이 있으므로 수도권 지역에서 출근도 가능하도록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며, 운행과정에서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동아일보, 12.5) >

◆ “무늬만 KTX인 강릉 KTX”

- 개통식 행사가 참석 귀빈일정 때문에 22일 넘게 개통이 미뤄짐
- 청량리~강릉이 1시간 40분이나 걸려 저속철인데 요금은 2만6천원으로 비싸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 관련은 철도건설과 손경복 사무관(☎ 044-201-3894), 운영 관련은 철도운영과 홍석표 사무관 (☎ 044-201-47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